라온시큐어 042510

Mar 25, 2021

Not Rated

Company Data

<u></u>	
현재가(03/24)	3,800 원
액면가(원)	500 원
52 주 최고가(보 통주)	4,470 원
52 주 최저가(보 통주)	1,475 원
KOSPI (03/24)	2,996.35p
KOSDAQ (03/24)	953.82p
자 본금	159 억원
시가총액	1,421 억원
발 행주 식수(보통주)	3,792 만주
발행주식수(우선주)	0 만주
평균거래량(60일)	595.3 만주
평균거래대금(60일)	229 억원
외국인지분(보 통주)	1.23%
주요주주	
이순형 외 6 인	20.03%

Price & Relative Performance



주가수익률(%)	1 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4.3	17.3	157.6
상대주가	8.6	-0.8	29.8



금융 • 미드스몰캡 김지영 3771-9735, jykim79@iprovest.com,



보안업체가 확장성을 가진다면?

기업 개요: 모바일 보안 솔루션의 최강자, 라온시큐어

라온시큐어는 2000년에 상장한 물리 보안 업체 테라움(주)이 2012년에 정보 보안 업체 루 멘소프트를 흡수합병 하면서 출범한 ICT 통합 보안 기업임. 모바일 환경에서의 필수 통합 보안 솔루션 4종(모바일백신, 모바일암호인증, 가상키보드, 모바일단말관리)를 확보한 국내 유일 기업으로 통합보안 솔루션 제품 라인업을 국내 고객사(500개 이상)에 제공하고 있음.

투자포인트①: 모바일 신분증의 확장성은 무궁무진

라온시큐어에 대한 투자포인트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확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 모바일 신분증 시장을 통한 확장성은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향후 성장성 및 수익성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새로운 모바일 환경 속에서 올해 동사가 진행중인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신원인증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 도입 시기가 빨라질 것. 특히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모바일 신분증 속에 출입통제·시스템 로그인·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될 수 있어 확장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음. 최근 백신역권 및 모바일 사원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투자포인트②: 사설인증서 시장 성장 기대

필자는 라온시큐어의 '원엑서스CX'가 사설인증서 시장과 더불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2020년 공인/사설 인증서 시장도 전년대비 높은 성장(YoY 약 11.1%)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올해도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

투자포인트③: 해외에서 먼저 찿는 라온시큐어의 보안솔루션

올해 1월 라온시큐어는 스마트워크 보안 플랫폼 '원가드(OneGuard)'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디렉토리'에 국내 최초로 등재되었다고 발표. 최근 일본 및 미국의업체들이 먼저 동사의 보안솔루션에 대한 수요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 올해 성장 기대.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Torceast carriings	& valuation				
12 결산 (억원)	2015.12	2016.12	2017.12	2018.12	2019.12
매 출 액 (억원)	125	167	212	246	304
YoY(%)	11.0	34.2	27.2	15.9	23.7
영업이익 (억원)	8	19	33	40	21
OP 마진(%)	6.4	11.4	15.6	16.3	6.9
순이익 (억원)	7	17	34	38	25
EPS(원)	22	54	106	117	66
YoY(%)	흑전	147.4	96.8	10.8	-43.8
PER(배)	155.1	48.2	27.7	17.9	42.6
PCR(배)	97.0	36.4	25.2	14.7	23.2
PBR(배)	10.0	6.6	5.9	3.4	4.1
EV/EBITDA(배)	79.8	30.3	21.0	12.3	23.0
ROE(%)	6.7	14.8	23.8	21.1	10.2

라온시큐어 소개

모바일 보안 솔루션의 최강자 : 라온시큐어

라온시큐어는 2000년에 상장한 물리 보안 업체 테라움㈜이 2012년에 정보 보안 업체 루멘소 프트를 흡수합병 하면서 출범한 ICT 통합 보안 기업이다. 모바일 환경에서의 필수 통합보안 솔루션 4종(모바일백신, 모바일암호인증, 가상키보드, 모바일단말관리)를 확보한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통합보안 솔루션 제품 라인업을 구축해 현재 500개가 넘는 국내 고객사에 제공하고 있다.

동사는 FIDO(Fast Identity Online) 생체인증 분야의 선구자로, 2015년 글로벌 생체인증 협의기구인 FIDO 얼라이언스로부터 세계 최초로 FIDO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FIDO 기반 다채널 사설인증 플랫폼 '원패스(OnePass)'를 제공하여 현재 모바일 보안 솔루션 생체인증 시장에서 약 80%의 점유율을 확보 중이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인증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관공서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DID(Decentralized Identity, 분산신원증명) 플랫폼 '옴니원(OmniOne)'의 공급 사업을 차례로 수주하며 적용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2020년 품목별 매출비중은 모바일보안 42.8%, PC보안 12.6%, 통합접근관리 11.2%, 유비쿼터스PKI 3.6%, 기타 29.8%이다. 주주 구성은 최대 주주인 이순형 대표이사 외 3인이 19.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주주가 80.4%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1 6 7
시기	내용
1998 년 4 월	네오웨이브㈜ 설립
2000 년 12 월	코스닥시장 상장
2012 년 10 월	라온시큐어 출범
2012 년 12 월	美애플 모바일단말관리(MDM) 솔루션 기술개발 협력 체결
2013 년 5월	이동통신 3 사 USIM 스마트인증 서비스 오픈
2015 년 5 월	세계 최초 FIDO Certified 글로벌인증 획득
2017 년 5월	국제 생체인증 표준협회 FIDO Alliance 이사회 멤버 선임
2018년 8월	대한민국정부포털 정부 24 지문인증 서비스 오픈
2019 년 4 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 사업자 선정
2019 년 9 월	8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카드본인확인 서비스 시작
2020 년 1 월	블록체인 신원인증 플랫폼 기반 병무청 간편인증 서비스 오픈
2020 년 7 월	행안부 블록체인 기만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구축 사업 수주
2021 년 1 월	국세청 연말정산 간편인증 서비스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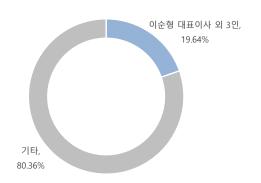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 라온시큐어 연혁

[도표 2] 라온시큐어 일반현황

[도표 3] 라온시큐어 주주구성 (2020년 12월 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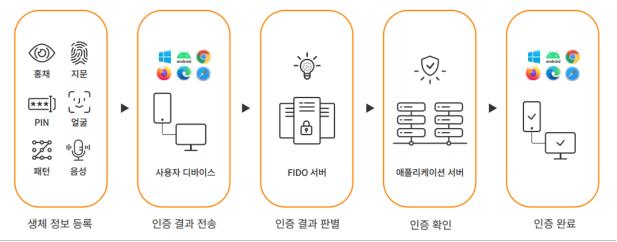
회사명	내용
회사명	라온시큐어㈜
대표이사	이순형
설립일	1998년 04월 16일
상장일	2000년 12월 29일 (KOSDAQ)
자본금	186.9억원
직원수	198 ('20.12 기준)
주요사업	정보 보호
주사업장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5 11,12,13층



자료: Company data,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Company data,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라온시큐어의 FIDO 기반 다채널 사설인증 플랫폼 'OnePass'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 라온시큐어의 블록체인 기반 DID 플랫폼 'Omni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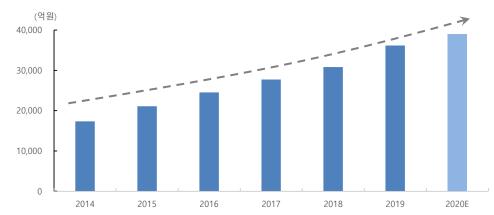
투자포인트①: 모바일 신분증의 확장성은 무궁무진

라온시큐어에 대한 투자포인트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확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 모바일 신분증 시장을 통한 확장성은 이제 걸음마 단계이지만 향후 파급력과 성장 및 수익성에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2) 또한 사설인증서를 통한 새로운 시장의 개척은 2~3년 뒤 동사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전망이다. 3) 마지막으로 그 동안 꾸준히 노력해온 해외 진출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가시화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과거 국내에 국한되었던 보안업체들과는 다른 라온시큐어만의 차별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국내 보안시장은 꾸준한 성장 지속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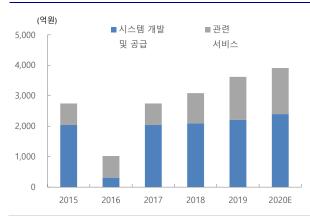
2019년 국내 정보보안시장 규모는 3.6조원으로 전년대비 17.4% 성장했다. 크게 두 개 부문으로 분류되는데, 정보보안시스템 개발 및 공급 시장이 2.2조원으로 전년대비 5.5% 성장했고, 정보보안 관련 서비스 시장은 1.4조원으로 전년대비 42.5% 성장했다. 특히 정보보안 관련 서비스에서 '보안 교육 및 훈련 서비스' 분야의 매출이 높은 성장세(YoY +675.2%)를 보였는데, 이는 ISMS 의무화 대상자 확대에 따른 보안 교육 및 훈련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도표 6] 국내 보안시장 성장은 꾸준한 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 국내 보안시장 두 개 부문 시장 추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8] 정보보호산업 중분류 매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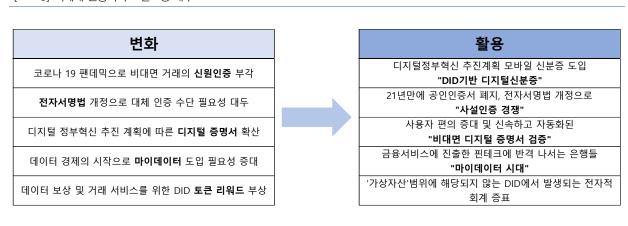
	구분		
	네트워크보안 시스템 개발	7.5	8.3
정보보안	시스템보안 솔루션 개발	5.3	5.7
정도모인 시스템 개발	정보유출방지 시스템 개발	4.3	4.6
시으럼 게임 및 공급	암호/인증 시스템 개발	1.8	2.0
ᆽᇹᆸ	보안관리 시스템 개발	3.1	3.4
	소계	22.1	24.0
	보안컨설팅 서비스	4.4	4.9
	보안시스템 유지관리/보안성 지속 서비스	3.9	4.2
정보보완 관련	보안관제 서비스	3.7	3.8
성도로된 된단 서비스	보안교육 및 훈련 서비스	0.1	0.2
71H=	공인/사설 인증서	0.6	0.7
	클라우드 서비스	1.3	1.4
	소계	14.1	15.1
	합계	36.2	39.1
	<u> </u>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모바일 신분증의 확장성은 클 수 밖에 없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안 및 각종 사이버보안 위협 대응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이른바 '온택트(On-tact)'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거래의 신원인증이 부각되었고, ② 21년만에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대체 인증 수단필요성도 대두 되고 있고(사실인증서), ③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에 따른 디지털 증명서도 확산될 전망이다(도표9 참조).

[도표 9] 차세대 인증서비스 필요성 대두



자료: Company data,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0] 금융 인증 체계의 변화-정보지갑

"금융 인증 체계의 변화"- 정보지갑



필자는 결국 새로운 모바일 환경 속에서 신원인증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 도입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확장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는데, 모바일 신분증 속에 출입통제기능 · 시스템 로그인 기능 · 증명서 발급기능 등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신원 인증 서비스가 포함되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라온시큐어의 모바일 공무원증은 'LG CNS', '시스원'과 컨소시엄으로 구축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첫 번째 시범사업이다.

블록체인 기반 분산ID(Decentralized Identifier, 이하 DID) 방식을 채택한 모바일 공무원증은 2021년 1월부터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 1만5천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되며, 향후 6월까지 20만 공무원 대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라온시큐어는 이를 기반으로 향후모바일 신분증 분야에서 경쟁력 확보를 통한 관련 시장 매출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 11] DID 기반 디지털 신분증 구축 사례_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공무원증은 <mark>출입통제, 시스템 로그인 및 기타 다양한 신원인증</mark>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확장 사례로 백신여권도 있음

최근 백신 접종을 시작한 선진국들은 '백신 여권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백신여권'이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카드 형태로 코로나19백신 접종 사실 등을 담은 여권을 말한다. 이미 선진국들은 해외 출국의 필요성이 높은 출국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역시 질병관리청에서 필수적인 공무 출장이나 파병 및 긴급한 경제 활동이 요구되는 출국자들에 우선 접종을 시행키로 발표한 상황이다.

[도표 12] 모바일 신분증의 확장성인 백신여권도 확산 전망



자료: FT, 신문기사 참조,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3] 미국 기업 64%가 백신여권 도입 추진_(설문조사)

[도표 14] 모바일 사원증 주요기능(예시)

TRAVEL MANAGERS ON HEALTH PASSPORTS

WHAT DO YOU THINK ABOUT GOVERNMENT-ISSUED DIGITAL HEALTH VERIFICATION PASSPORTS TO HELP OPEN UP TRAVEL?

Good policy	64%
Bad policy	10%
Indifferent	15%
Not sure	11%

Source: Global Business Travel Association March 9-13 survey of about 302 member travel managers and procurement professionals



자료: 업계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신문기사 참조,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라온시큐어 다수의 정부 및 공공기관도 DID 프로젝트를 진행

라온시큐어의 경우 위에서 말했듯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과 관련된 특 랙레코드를 차곡차곡 쌓는 중이다. 실제로 국내 모바일 보안솔루션 관련 기업은 20여 개사가 있지만 개별 솔루션 별로 3~4개사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바일 보안솔루션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모바일 환경을 선도하는 보안기술 개발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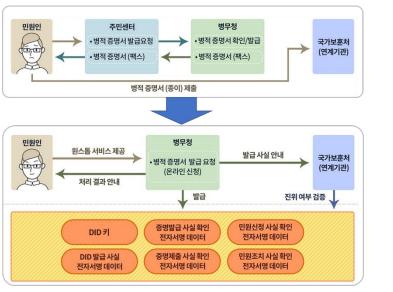
이를 위해 플랫폼 기업과 모바일 기기 제조사의 기술 협력에 대한 경험도 중요하다. 라온시큐어는 현재 삼성전자 S.E.A.P.(Samsung Enterprise Alliance Program) 공식 파트너이자 삼성전자 녹스(KNOX) 리셀러, 삼성패스(SAMSUNG Pass) 사업협력 파트너로서 안정적인 기술개발 및 영업 마케팅 협력을 토대로 모바일 보안솔루션 분야의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이미 동사는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분산ID(DID) 플랫폼 '옴니원(OmniOne)'을 기반으로 다수의 정부 및 공공기관과 DID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경쟁력을 입증 받은 바 있다(도표15 참조).

[도표 15] 블록체인 기반 분산ID(DID) 프로젝트

기관	내용
행정안전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구축 사업
세종시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자율주행차 신뢰 플랫폼 구축 시범 사업
경상남도	디지털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시범 사업
병무청	인증서 없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사업

자료: Company data,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6] 라온시큐어 • 병무청, 블록체인 간편인증 서비스 인증



투자포인트②: 사설인증서 시장 성장 기대

필자는 라온시큐어의 '원엑서스CX'가 사설인증서 시장과 더불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 근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2020년 공인/사설 인증서 시장도 전년대비 높은 성장(YoY 약 11.1%)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시장은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본격시행되면서 올해도 그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사설인증서의 장점은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⑩매년 갱신할 필요 없으며, ⓒ비밀번호 외우지 않아도 되며, ⑪보안 업그레이드 등이 있다. 결국 정부의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해 인증서시장은 과거 '공급자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설인증서를 한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라온시큐어의 '원엑서스CX'의 성장도 기대된다.

[도표 17] 라온시큐어의 '원엑서스 CX'

[도표 18] 플랫폼 시장에서 모든 비대면 거래에서 '인증'이 필요





자료: 업계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9] 관련 정보보호 법 제도

구분	법령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정보 도입 -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명확화 - 가명정보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사용가능 -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는 가명정보를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 가능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 구체화 개인정보 중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판단 기준 신설해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데이터 3 법	정보통신망법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 가능 -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한 허용 - 가명정보 활용과 결합에 대한 안정장치 및 사후 통제 수단 마련
신용정보법 산업 도입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강화 - 본인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제공토록 요구 7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본인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전자서명법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및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 활성화 신뢰성, 안정성 있는 전자서명 수단 제공을 위한 운영기준 평가 및 안정제 도입
정자서면법 평과기관에서 평가		-운영기준 인정 사업자 + 본인확인기관 : 가입자의 신원을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확인 -운영기준 인정 사업자 : 신원확인 방법을 운영기준으로 정한 원칙 내에서 자유롭게 구성 가능, 신원확인 방법의 안정성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운영기준 준수사실 표시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운영기준 준수사실 표시 규칙 가입자 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규정 - 대면 신원확인 원칙, 안전한 방식의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포함 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 제공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 기준 고시 -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 고시

투자포인트(3): 해외에서 먼저 찾는 라온시큐어의 보안솔루션

지난 2021년 1월 18일 라온시큐어는 동사의 스마트워크 보안 플랫폼 '원가드(OneGuard)' 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디렉토리(Android Enterprise Solutions Directory)'에 등재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내 MDM(Mobile Device Management, 모바일 단말 관리) 솔루션 중 최초 등재이다.

구글은 소프트웨어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과 성능, 보안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승인된 제품에 한해 등록 자격을 부여한다. 이에 국내 MDM 솔루션 최초 안드로이드 엔터프라이즈(AE) 솔루션 디렉토리에 등재했다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 상위 기술력 입증하는 것이다.

라온시큐어는 2015년 5월 글로벌 생체인증 협의기구인 FIDO 얼라이언스 (www.fidoalliance.org)로부터 '터치엔 원패스(TouchEn OnePass)' 솔루션으로 세계 최초로 FIDO Certified 인증을 받은바 있다. 이에 일본 및 미국의 업체들이 먼저 동사의 보안솔루션에 대한 수요 요청이 들어오면서 2020년부터는 일본 금융기관 및 항공사 등에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매출 가시화를 시현했으며, 올해 그 성장이 기대된다.

Enterprise Solutions Directory

ON를 Guard

ON를 Guard

FLOS 한
사이버 보안 위협

위협 행위에 대한 심증적 상관분석

PA 한 환경 제공

PA 한 환경 제공

[도표 20] 美 구글 추천 제품으로 선정된 라온시큐어의 '원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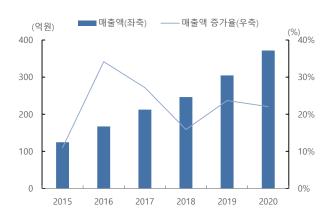
20년 실적 Review 및 점검

라온시큐어의 20년 실적(연결기준)은 매출액 371.5억원(YoY +20.0%), 영업순손실 35.2억원(YoY 적자전환)을 기록했다. 20년 실적관련 매출액 증가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작년 한해 80여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면서 판관비가 YoY +37.0% 늘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보안산업의 특성상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연구인력 확보는 어느 때보다 우선시되고 있다는 점과, 올해 국내 사설인증서 및 디지털신분증 시장 선점을 위한 지난 몇 년 간 연구인력 고용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성장성 및 수익성 확보을 위한 투자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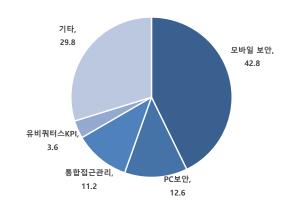
이에 작년 12월, 동사는 '2020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에서 단체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현재 라온시큐어는 지속적인 사업 확장으로 2018년 대비 2020년 임직원 수를 2배 늘렸으며, 이 중 R&D, 신사업 관련 인력 채용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도표 21] 라온시큐어의 매출액 및 증가율(YoY) 추이

[도표 22] 라온시큐어 매출액 비중(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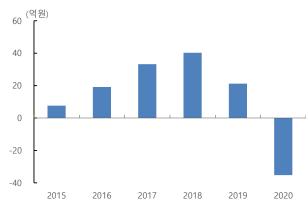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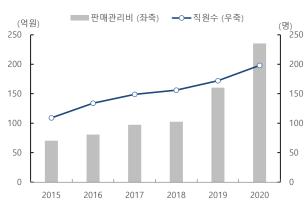
____ 자료: Company data,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3] 라온시큐어의 영업이익 추이



자료: Company data,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4] 판관비 및 인력 추이



자료: Company data,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라온시큐어 042510]

[다는시뀨이 04251	UJ					
포괄손익계산서				Ę	- 위: 억원	재-
12 결산 (억원)	2015A	2016A	2017A	2018A	2019A	12길
매출액	125	167	212	246	304	유동
매출원가	47	67	82	103	123	ē
매출총이익	78	100	131	143	182	
매출총이익률 (%)	62.5	59.8	61.5	58.0	59.6	지
판관비	70	81	97	102	160	フ
영업이익	8	19	33	40	21	비유
영업이익률 (%)	6.1	11.5	15.6	16.3	7.0	T
EBITDA	13	26	41	46	35	곤
EBITDA Margin (%)	10.5	15.4	19.1	18.8	11.4	フ
영업외손익	1	0	-1	0	3	フ
관계기업손익	0	0	0	0	0	자신
금융수익	1	1	1	1	12	유동
금융비용	-1	0	0	0	-7	
기타	1	0	-1	-2	-3	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9	19	32	40	24	T
법인세비용	2	2	-2	2	-1	フ
계속사업순손익	7	17	34	38	25	비유
중단시업순손익	0	0	0	0	0	Ā
당기순이익	7	17	34	38	25	人
당기순이익률 (%)	5.5	10.2	16.2	15.4	8.3	기티
비지배지 분순 이익	0	0	1	1	4	부채
지배지분순이익	7	17	34	37	21	지배
지배순이익률 (%)	5.5	10.2	15.8	15.1	6.9	Х
	0	0	0	0	0	Х
기타포괄이익	0	0	0	0	0	0
포괄순이익	7	17	34	38	25	フ
비지배지분포괄이익	0	0	1	1	4	비지
지배지분포괄이익	7	17	34	37	21	자본

지배지분포괄이익 7 17 34 3 주: K-IFRS 회계기준 개정으로 기존의 기타영업수익/비용 항목은 제외됨

현금흐름표				Ę	단위: 억원
12 결산 (억원)	2015A	2016A	2017A	2018A	2019A
영업활동 현금흐름	23	34	28	33	36
당기순이익	7	17	34	38	25
비현금항목의 가감	4	6	3	8	17
감가상각비	1	1	2	2	12
외환손익	0	0	0	0	0
지분법평가손익	0	0	0	0	0
기타	3	4	1	6	5
자산부채의 증감	12	11	-10	-14	-8
기타현금흐름	0	0	0	1	2
투자활동 현금흐름	-2	-16	-38	-17	-37
투자자산	0	0	0	0	4
유형자산	0	6	1	6	9
기타	-2	-23	-39	-22	-50
재무활동 현금흐름	-2	-4	-12	3	179
단기차입금	0	-1	-11	0	0
사채	0	0	0	0	179
장기차입금	0	0	0	0	0
자본의 증가(감소)	0	0	0	0	0
현금배당	0	0	0	0	0
기타	-2	-3	-1	3	0
현금의 증감	19	13	-22	20	178
기초 현금	27	46	59	37	57
기말 현금	46	59	37	57	235
NOPLAT	6	17	35	38	22
FCF	24	41	34	36	37

자료: 라온시큐어,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개무상태표	단위: 9

재무상태표				Ę	단위: 억원
12 결산 (억원)	2015A	2016A	2017A	2018A	2019A
유동자산	102	88	138	205	389
현금및현금성자산	46	59	37	57	235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41	25	51	94	103
재고자산	0	0	0	0	0
기타유동자산	15	4	50	53	50
비유동자산	59	78	65	70	122
유형자산	2	7	7	10	35
관계기업투자금	0	0	0	0	0
기타금융자산	15	20	8	12	25
기타비유동자산	42	50	51	48	62
자산총계	162	166	203	274	511
유동부채	49	32	35	65	119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24	19	33	63	74
차입금	12	11	0	0	0
유동성채무	0	2	2	2	9
기타 유동부 채	13	0	0	0	36
비유동부채	6	10	8	6	164
차입금	6	4	2	0	0
사채	0	0	0	0	132
기타비 유동부 채	0	6	6	6	32
부채총계	55	42	44	71	283
지배지분	107	124	158	195	217
자본금	159	159	159	159	159
자본잉여금	0	0	0	0	0
이익잉여금	12	29	63	100	122
기타자본변동	-64	-64	-64	-64	-64
비지배지분	0	0	2	8	12
자본총계	107	124	160	203	229
총차입금	18	17	4	2	168

단위: 억원 주요 투자지표

주요 투자지표				단위	H: 원, 배, %
12 결산 (억원)	2015A	2016A	2017A	2018A	2019A
EPS	22	54	106	117	66
PER	155.1	48.2	27.7	17.9	42.6
BPS	336	390	497	613	682
PBR	10.0	6.6	5.9	3.4	4.1
EBITDAPS	24	60	104	126	67
EV/EBITDA	79.8	30.3	21.0	12.3	23.0
SPS	391	525	668	774	957
PSR	8.6	4.9	4.4	2.7	2.9
CFPS	76	129	106	114	115
DPS	0	0	0	0	0

재무비율				단역	리: 원, 배, %
12 결산 (억원)	2015A	2016A	2017A	2018A	2019A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11.0	34.2	27.2	15.9	23.7
영업이익 증가율	흑전	151.6	73.6	21.1	-47.3
순이익 증가율	흑전	147.4	101.2	10.2	-33.1
수익성					
ROIC	7.2	18.2	38.1	36.2	9.5
ROA	4.4	10.4	18.2	15.6	5.3
ROE	6.7	14.8	23.8	21.1	10.2
안정성					
부채비율	51.0	33.9	27.3	35.2	123.6
순차입금비율	10.8	9.9	1.8	0.7	32.8
이자보상배율	13.6	43.7	201.5	867.0	3.1



최근 2 년간 목표주가 및 괴리율 추이

일자	일자 투자의견		괴리율 견 목표주가 평고 취고 취고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 2 ¹	구시의선		평균	최고/최저	크시	구시의선	1건 국표구기	평균	최고/최저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작교도 내용하게 본에 기급부하기 교로 제공하여에 가장 내용한 기술이 많습니다.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투자의견 비율공시 및 투자등급관련사항** ■ 기준일자_2020.12.31

구	분	Buy(매수)	Trading Buy(매수)	Hold(보유)	Sell(매도)
비	율	90.6	7.5	1.9	0.0

[업종 투자의견]

Overweight(비중확대):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Underweight(비중축소):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Neutral(중립):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기업 투자기간 및 투자동급] 향후 6개월 기준, 2015.6.1 (Strong Buy 등급 삭제) Buy(매수):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이상 Hold(보유):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10%

Trading Buy: KOSPI 대비 10%이상 초과수익 예상되나 불확실성 높은 경우 Sell(매도):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 이하